

2014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수시모집 면접 문제(오후)

[교직 인성]

※ 다음 자료를 1분 정도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답하시오.

【자료 1】

순우곤이 말하였다. ‘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예(禮)인가?’ 그러자 맹자가 말하였다. ‘그것은 예(禮)이다.’ 순우곤이 다시 말하였다. ‘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건져주지 않는가?’ 맹자가 다시 말하였다. ‘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리나 다름 없다.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예(禮)이며,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져주는 것은 권(權)이다.’

【자료 2】

상 민 : (한참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, 매우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) 선생님.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

선생님 :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다녀왔어야지. 쉬는 시간까지 조금만 참아.
(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)

길 동 : (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) 선생님! 갑자기 배가 아파요.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...

선생님 : 어떻게 아픈데? 어서가. 화장실 가셔도 가라앉지 않으면 양호실 들르고...

상 민 : (선생님 말씀이 끝나자마자) 선생님. 왜 길동이는 가도 되고 저는 안 돼요?

질문

- ① <자료 2>에서 선생님이 상민과 길동에게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 이유를 <자료 1>에서의 ‘예’와 ‘권’의 의미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시오.
- ② 위에서 예시된 것 이외에 우리 삶에서 ‘권’에 해당하는 사례를 한 가지 들고, 그것이 ‘자기합리화’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오.

출제기준

- 예비초등교사로서 지녀야 할 사명감, 교직에 대한 이해, 사회공헌의지, 교사로서의 잠재력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.
-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도덕적 기준과 예외적 사태에서의 인간 행위 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통해 학생들의 교직인성을 평가한다.
- 면접 문항이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지는 않도록 한다.

채점기준

- **우수 :** ①, ②에 대해 매우 합당한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교직에 대한 이해와 교사로서의 잠재력 및 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
 - **보통 :** ①, ②에 대해 비교적 합당한 대답을 한 경우
 - **미흡 :** ①, ②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한 경우
- ※ 예시 답안과 다른 대답을 한 경우에도, 합당한 논리와 품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평정함